

# 精油産業은 과연 「땅 짚고 헤엄치기장사」 인가

金 乾 治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지금까지 정유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수익성이 좋고 안전한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의 통념이었고, 또 아직도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보는 눈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석유류가격을 조정할 때마다 精油社의 손익문제가 거론되고, 또 정유업계가 일반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유산업의 수익성은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가? 금년도 상반기 精油社 손익이 4백1억원의 흑자를 나타냄으로써 경영이 호전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과연 그런가? 지난 6월 30일 현재로 精油5社의 장부가 합계 4백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表-1) 83年 上半期 精油5社 손익상황

(單位: 억원)

| 区 分    | 油公  | 湖油  | 京仁  | 雙龍  | 極東 | 計   |
|--------|-----|-----|-----|-----|----|-----|
| ● 精油部門 | 145 | ▲39 | 61  | 84  | ▲7 | 244 |
| ● 石油化學 | 137 |     |     |     |    | 137 |
| ● 潤滑油  | 11  | 10  |     | ▲52 | 1  | ▲30 |
| ● 發電   |     |     | 50  |     |    | 50  |
| 計      | 293 | ▲29 | 111 | 32  | ▲6 | 401 |

우선 4백1억원이란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精油社 손익 4백1억원이라고 하지만, 정유사가 정유부문 이외에 석유화학(油公), 윤활유(油公, 湖油, 極東), 發電(京仁), 윤활기유(雙龍) 등 기타부문의 사업을 겸하면서 생긴 손익이 가산된 것이므로 정유부문의 손익은 2백44억원으로 줄어든다.

## 上半期の 손익분석

단적으로 말해서 기타부문의 손익을 뺀 정유부문의 이익 2백44억원은 정부가 생각하는 油價체계의 상의 최소적정이익에 비해 6백94억원의 결손을 보이는 숫자다. 즉 精油5社는 83년 상반기에 9백38억원의 흑자를 기록해야 기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보장되는데 2백44억원 밖에 이익을 못냈으니 6백94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9백38억원의 내역을 살펴 보자.

① 자기자본의 稅後 10% 이윤 = 188억원

② 81년도 油價調整시 過소반영으로 正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분 = 155억원

③ 83년 1~4월 油價조정시까지의 이익 중 미상 각액 = 595억원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자본의 세후 10% 이윤 = 정부가 물가정책상 중요산업의 원가를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적정이익은 자기자본의 세후 10%이다. 현행 精油 5社의 정유부문 자기자본금이 약 2천3백억원이므로 법인세등을 납부한 후의 상반기, 즉 6개월분의 이익은 3백76억원의 절반인 1백88억원이다.

② 81년도 油價調整시 過소반영으로 精油社가 입은 손실보전분 = 지난 4월 19일 油價가 조정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인 81년 4월 19일에도 油價가 조정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금리와 환율상승 추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精油社는 7백59억원에 이르는 추가손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해, 그러니까 81년 11월 19일 유가조정시 정부는 7백59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원유가격 책정시 배럴당 3백41원을 더 얹어 주었다. 배럴당 3백41원의 페이스라면 82년말까지 손실이 보전케 된다는 그런 계산이었다. 그러나 석유수요감소로 판매가 부진하여 작년말까지 보전된 액수는 6백4억원이고, 1백55억원은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다. 이 돈은 금년 2월 14일자로 다 커버가 됐으나, 어쨌든 금년 상반기 이익 가운데 1백55억원이란 금액은 81년도에 精油社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수익이 넘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③ 83년 1~4월 油價조정시까지의 이익금 미상 각액 = 금년의 국제원유가격 인하로 국내油價가 지난 4월 19일자로 인하됐으나, 실제 原油價인하는 4월 19일자로 일제히 내린 것이 아니라, 그 한두 달전부터 산발적으로 내렸다. 이와 같은 원유가격 인하와 제품가격인하의 시차로 발생한 이익등이 8백3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8백32억원을 精油社 수익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럴당 6백83원씩 판매가격을 낮추었다. 이로 인해 금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각된 금액이 2백37억원, 하반기에 5백95억원이 가지면 끝난다. 금년말까지 이익을 상각하기 때문에 83년 6월말 현재로는 5백95억원의 이익이 남아 있는 셈이다. 하반기에는

5백95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여 83년도 전체로는 제로가 된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의 精油社 손익은 연간개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6백94억원의 결손, 稅後 10%의 적정이익인 1백88억원을 포기하고도 5백6억원의 순손실이라는 결론이다.

### 낮은 收益性

이와 같이 국내정유산업은 과거 수익성,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내제조업 평균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79년 이후 수요감퇴로 정유산업은 가동율의 저하, 高原油價, 환율의 급등, 稅制 및 가격조정의 경직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재무구조도 크게 악화되어 왔다.

表-2) 매출액 순이익률 및 자기자본 순이익률 비교  
(單位: %)

|       | 매출액순이익률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製造業     | 建設業  | 精油業   | 製造業      | 建設業   | 精油業   |
| 80년도  | -1.06   | 2.21 | -0.9  | -7.32    | 18.74 | -34.8 |
| 81 "  | -0.72   | 1.63 | -0.29 | -5.19    | 12.53 | -8.38 |
| 82 "  | 0.04    | 1.53 | 0.85  | 0.22     | 10.42 | 17.24 |
| 3개년평균 | -0.58   | 1.79 | -0.11 | -4.10    | 13.90 | -3.06 |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유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80년 -0.9%, 81년 -0.29%, 82년 0.85%로 3개년 평균은 -0.11%를 기록해 다른 산업보다 수익률이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2차 석유위기 이후 79~82년 기간의 精油社의 경영성과를 살펴 보면, 정유부문에서 稅前 5백71억원과 석유화학·발전·유탄유 등 기타부문에서 稅前 1천11억원의 수익을 실현하여 법인세등 1천5백35억원을 납부하고 세후 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즉 79년에는 세후 1백94억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차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80년, 81년에는 각각 4백84억원, 2백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82년에는 값싼 현물시장의 원유구입 확대, 유전스 기간 단축등의 경영효율화등으로 인해 다소 호전되었다.

80년, 81년 정유부문의 결손이 막대하게 발생한 이유중의 하나는 제 2차 석유위기시 국내油師의 급등을 일부 완화코자 석유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表 - 3) 精油社의 損益상황 (單位: 억원)

|             |         | 油公   | 湖油   | 京仁   | 雙龍   | 極東  | 計     |
|-------------|---------|------|------|------|------|-----|-------|
| 1979        | 1. 세 전  | 233  | 161  | 33   | -    | 5   | 432   |
|             | ○精油     | 0    | 122  | ▲21  | -    | ▲5  | 96    |
|             | ○기타     | 233  | 39   | 54   | -    | 10  | 336   |
| 1980        | 2. 법인세등 | 120  | 100  | 15   | -    | 3   | 238   |
|             | 3. 稅後   | 113  | 61   | 18   | -    | 2   | 194   |
|             | 1. 세 전  | 29   | 189  | ▲99  | ▲80  | ▲21 | 18    |
| 1981        | ○精油     | ▲233 | 130  | ▲77  | ▲80  | ▲34 | ▲294  |
|             | ○기타     | 262  | 59   | ▲22  | -    | 13  | 312   |
|             | 2. 법인세등 | 376  | 109  | 17   | -    | -   | 502   |
| 1982        | 3. 稅後   | ▲347 | 80   | ▲116 | ▲80  | ▲21 | ▲484  |
|             | 1. 세 전  | 68   | ▲56  | 187  | 50   | 6   | 155   |
|             | ○精油     | ▲58  | ▲104 | 134  | ▲5   | ▲11 | ▲44   |
| 1983        | ○기타     | 126  | 48   | 53   | ▲45  | 17  | 199   |
|             | 2. 법인세등 | 178  | 46   | 144  | -    | 8   | 376   |
|             | 3. 稅後   | ▲110 | ▲102 | 43   | ▲50  | ▲2  | ▲221  |
| 1984        | 1. 세 전  | 290  | 277  | 271  | 96   | 42  | 976   |
|             | ○精油     | 97   | 253  | 205  | 228  | 30  | 813   |
|             | ○기타     | 192  | 24   | 67   | ▲132 | 12  | 163   |
| 1985        | 2. 법인세등 | 131  | 124  | 148  | -    | 15  | 418   |
|             | 3. 稅後   | 159  | 153  | 123  | 96   | 27  | 558   |
|             | 1. 세 전  | 620  | 571  | 393  | ▲34  | 32  | 1,582 |
| 누계 (79, 82) | ○精油     | ▲194 | 401  | 241  | 143  | ▲20 | 571   |
|             | ○기타     | 814  | 170  | 152  | ▲177 | 52  | 1,011 |
|             | 2. 법인세  | 805  | 379  | 325  | -    | 26  | 1,535 |
| 1986        | 3. 稅後   | ▲185 | 192  | 68   | ▲34  | 6   | 47    |

(註) 其他部門내역: 油公-석유화학, 潤滑유  
湖油-윤활유  
京仁-발전  
雙龍-윤활기유  
極東-윤활유

정유산업은 적자누적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원유 도입 유전스등 외채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 환율상승과 높은 국제금리로 인해 손익 및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돼 에너지 및 정유산업 재투자기반을 상실한 채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 가동률의 저하

그러면 여기서 정유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석유수요의 감퇴와 가동률의 저하이다. 국내정유산업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는 동안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절약과 脫石油 정책으로 수요가 정체되었으며, 특히 79년을 고비로 계속된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는 석유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석유류수요는 64년 하루 2만배럴 수준에서 79년 50만 8천배럴 수준으로 25배 늘어났으나,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류소비는 크게 둔화되어 80년에 1%, 81년 0.4%, 82년 3%씩 각각 감소하였다.

(表 - 4) 国内油類需要의 변동추이

| 구분      | 77  | 78  | 79  | 80  | 81   | 82  |
|---------|-----|-----|-----|-----|------|-----|
| 需 要(천B) | 414 | 456 | 508 | 501 | 499  | 483 |
| 증감율(%)  | 16  | 10  | 11  | ▲1  | ▲0.4 | ▲3  |

한편 국내정제능력은 78년의 58만 B/D에서 제 2차 석유위기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雙龍精油的 6만 B/D(80년 5월)와 湖南精油的 15만 B/D(81년 6월)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현재 79만 B/D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유류수요감퇴와 정제능력 증대는 정유산업의 가동률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유류수요의 계절성 및 정기보수기간을 감안한 적정가동률인 75~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가동수준에 머물고 있다.

表 - 5) 国内精油産業의 稼動率推移

| 구분         | 77  | 78  | 79  | 80  | 81    | 82  |
|------------|-----|-----|-----|-----|-------|-----|
| 精製能力(천B/D) | 440 | 580 | 580 | 640 | 727.5 | 790 |
| 原油투입량(%)   | 418 | 458 | 501 | 493 | 489   | 474 |
| 稼 動 率(%)   | 95  | 79  | 86  | 77  | 62    | 60  |

(註) 연간 精製能力은 시설완공 시점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가동률저하현상은 석유제품생산원가증 固定費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불황기에 시설증대를 추진한 기업은 투자에 따른 장기간 회수 불가능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 환차손의 급증

둘째 환율상승에 따른 換差損의 급증이다.

석유는 달러로 수입되므로 원유의 도입코스트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유산업의 경영은 제품코스트가 환율과 함께 변동된다는 의미에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석유제품코스트의 약 92%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유수입에서는 보통 달러貨 수입금융(시퍼즈 유전스 및 수입유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원유구입시점의 환시세로 달러에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원유도입코스트로 계상됨에도 불구하고 원유대금 지불을 위한 원화에서 달러로의 실제교환은 원유구입 시점이 아닌 輸入유전스 결제시에 행해짐에 따라서 원유구입시점과 수입유전스를 결제하는 시점과의 시차에서 이른바 換리스크를 갖게 되어 이 사이에 환율이 인상될 때, 정유산업은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외화수입금융을 이용하는데 따라서 발생하는 換差損을 「유전스 환차손」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表 - 6) 유전스 換差損 발생現況

|                        | 78         | 79         | 80               | 81              | 82              |
|------------------------|------------|------------|------------------|-----------------|-----------------|
| 연 평균換率<br>(증가율)        | 485<br>(0) | 485<br>(0) | 622.6<br>(36.6%) | 682.5<br>(6.1%) | 727.4<br>(6.6%) |
| 換差損<br>(억원)<br>(W/Bbl) | -          | -          | 2,905<br>1,656   | 1,200<br>658    | 1,281<br>724    |

表 - 7) 原油導入 유전스 利子의 推移

| 구 분               | 78    | 79    | 80     | 81     | 82     |
|-------------------|-------|-------|--------|--------|--------|
| 原油외상대입금<br>잔액(억원) | 2,330 | 5,094 | 14,377 | 17,000 | 16,246 |
| (평균외상기일)          | (67)  | (93)  | (158)  | (150)  | (139)  |
| 유전스利子(억원)         | 107   | 164   | 1,029  | 2,300  | 1,510  |

이같은 환율의 변동은 제품코스트의 大宗을 이루는 원유도입코스트의 변동을 통해, 또 외화수입금융의 이용에 따른 「유전스換差損」의 발생을 통해서 정유산업의 경영을 불안정화 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환율이 오를 경우, 국내油價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환율 1% 상승시 정유사에

는 연간 약 6백49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油價에는 약 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환율 1% 상승시의 油價인상요인은 原油代상승폭 0.92%의 직접적인 인상요인과 외화채무의 원貨표시금액의 증가에 따른 0.38%의 추가인상요인으로 함께 1.3%의 인상규모가 되는 것이다.

국내환율은 지난 11월 9일 현재 6.3%가 상승하여 정유사들은 이미 6백여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고 있으며, 연말까지 7% 상승하는 경우, 정유사의 추가부담액은 1천1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율상승에 따른 油價인상요인의 누적은 결과적으로 정유산업의 재무구조의 악화와 원유도입유전스 사용규모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국제수지에의 영향 외에도 누적된 인상요인을 국내油價에 일시에 반영할 경우 여타 물가에의 충격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과다한 정부부문 비용

세제는 石油類稅의 重壓과 정부부문비용의 과다이다.

석유류세의 重壓은 정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코스트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석유류세는 다른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나 방위세를 제외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과 그 세율이 특징적이며, 지난 4월부터는 그동안 영세율이 적용되던 원유에 대하여 관세 5%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석유류에는 목적세의 성격이 있는 石油事業基金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석유제품가격중 정부부문비용은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다. 연간 석유류관련 諸稅公課金을 보면, ① 원유관세 2천억원(CIF 가격의 5%), ② 제품관세 2백억원(일반석유 5%, LPG 10%), ③ 방위세 1천1백억원(원유 및 제품 CIF의 2.5%), ④ 특별소비세 3천4백억원(세전공장도 가격 기준 휘발유 100%, 경유 9%, LPG 10%), ⑤ 부가가치세 5천8백억원(10%), ⑥ 수출진흥특별자금100억원(원유 및 제품 CIF의 0.24%), ⑦ 석유사업기금 4천5백억원(에너지관련기금·비축기금·석유개발기금 등으로 배럴당 2.89달러, LPG

톤당 1백69달러) 등 모두 1조 7천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表-8〉 石油에 부과되는 公課金 비교

(單位: \$/B)

| 구 분 |                              | 韓 国             | 日 本                       | 台 湾           |
|-----|------------------------------|-----------------|---------------------------|---------------|
| 原油  | 관 세                          | 1.45            | 0.28(정액)                  | 0.73(정율)      |
|     | 방 위 세                        | 0.73            |                           |               |
|     | 무역특계<br>基 金                  | 0.07            |                           |               |
|     | 小 計                          | 5.44            | 0.28                      | 0.73          |
| 製品  | 특 소 세                        | 2.30            | 4.01                      | 4.69          |
|     | 부 가 세                        | 2.26            | (정액: 휘발유<br>세, 경유거래<br>세) | (정율: 물품<br>세) |
|     | LPG관세                        | 0.08            |                           |               |
|     | LPG기금                        | 0.48            |                           |               |
| 小 計 | 7.06                         | 4.01            | 4.69                      |               |
| 總 計 | 12.50<br>(소비자 가격<br>의 26.4%) | 4.29<br>(10.8%) | 5.42<br>(13.6%)           |               |

이와 같은 석유제품가격의 정부부분비용은 외국의 10~15% 수준에 비하여 상당 수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연 국내석유류가격은 외국에 비하여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투자소요의 증대

내제 투자소요의 증대이다.

정유산업은 수급상황 변화에 따른 시장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종간 수급불균형 타개를 위한 重質油분해시설 건설, 低硫黃 연료유 공급확대에 따른 시설보완, 민간비축 확대에 따른 저장시설 건설등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유종간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현 정제 시설과 輕質原油 사용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잉여 B-C油를 輕質油로 전환하는 重質油분해 시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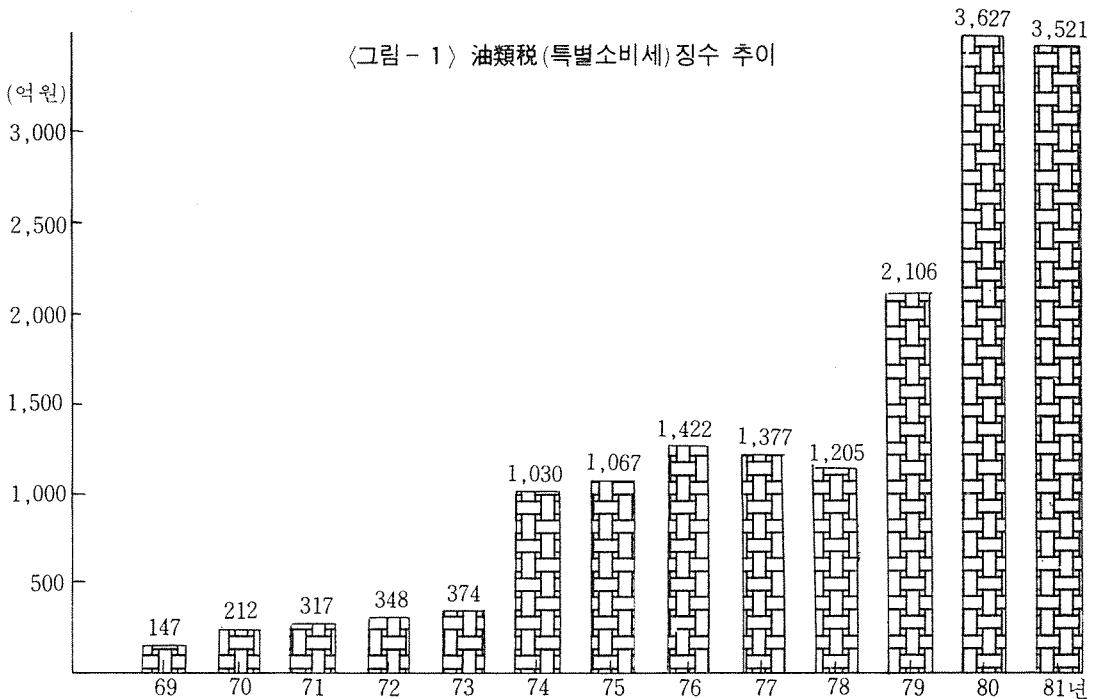
중질유분해시설은 86년에 3만B/D 1基, 88년에 3만 5천B/D 1基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질유분해시설 설치에는 일반 정유공장 건설의 약 2배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한 자금조달은 현재 국내정유산업의 수익성에 비추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8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極東石油의 3만4천B/D 규모의 중질유분해시설의 경우 소요 자금은 1천7백50억원(외자 1억4천3백만달러 포함)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공해방지에 의한 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원인 아황산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소시

〈그림-1〉 油類稅(특별소비세)징수 추이



키기 위하여 정부는 低硫黃油 공급율을 86년까지 B-C油는 67%, 輕油는 100%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미 81년 7월부터 연료유중 유허합유량을 B-C油는 4.0%에서 1.6%로, 輕油는 1.0%에서 0.4%로 감소시켜 서울지역에서부터 공급을 시작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탈황시설을 건설할 경우 3만B/D 시설을 기준으로 약 1천억원의 막대한 투자소요가 필요하다.

또 석유의 민간비축확대에 따른 신규 투자소요도 엄청나다.

석유비축은 경제·군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73년, 79년의 두차례에 걸친 세계석유파동 이후 특히 OECD를 비롯한 선진제국에서 경제적으로 비축이 추진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非産油開途國인 우리나라도 석유비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산업의 민간 저장시설은 제5차5개년계획기간중에 60日分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 경제발전의 원동력

석유는 他에너지源보다 열효율이 높고 취급이 간편하며, 공업용 기초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主宗에너지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급세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정유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석유화학업종중 전체생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효과도 전체의 19.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도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裝置産業이며, 석유류소비자가 하루에 약 50만 배럴

규모에 이르고 석유류제품 총매출액이 6조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정유산업의 발전은 곧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유산업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동력원인 基礎에너지의 안정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연료는 물론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소재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일상 의식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公益産業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精油社를 보는 눈은 「精油産業은 땅짚고 헤엄치기장사」라는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정유산업이 정제와 수급을 통해 부가가치를 시현하는 산업이면서도 원유부문과 최종소비자 양측 모두와의 유대관계 형성에 소홀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여기에는 과거 메이저와의 합작시 발생이익의 해외 과실송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과 급격한 유가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의 증가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정유사 이익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8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주요과제중의 하나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다. 특히 石油의 안정공급의 확보는 80년대의 안전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다.

「육먹는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 갈 때, 정유산업은 한결 더 굳건한 토대위에서 국민경제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정유산업은 공익산업으로서의 사명감에 충실, 보다 합리적이고 진실한 기업경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